

‘광주 서구민의 날’ 기념식 7일 개최

“나는 착한 서구민입니다” 참여·공감형 행사 열려

최무진·정찬용·김성숙 서구민상 수상자 선정, 시상식 함께 개최



광주 서구청 전경 사진

/광주 서구청 제공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오는 7일 오전 10시 서구청 들뜰홀에서 제32주년 서구민의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서구는 1988년 5월1일 자치구 승격을 기념해 이날을 ‘서구민의 날’로 제정했으며 1994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2년 전 ‘서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새로운 도시브랜드 ‘착한도시 서구’를 선포한 이후 주민과 함께 실천해 온 그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이번 기념식을 마련했다.

올해 행사는 ‘나는 착한 서구민입니다’를 주제로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참여·공감형 행사로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착한 서구민’이 등장하는 영상이 상영된다. 영상에는 서구에 거주하는 소상공인과 자원봉사자, 어린이, 결혼 이민자를 비롯

해 서구의 자랑인 펜싱 국가대표 선수 등이 출연해 각자의 삶과 공동체의 의미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상황극 ‘서구민 오디션’에서는 어르신, 직장인, 청년, 가정주부 등이 등장해 천원의동행, 통합돌봄, 골목경제119, 마을합창단 등 서구의 대표 정책을 일상 속 이야기로 풀어내며 ‘누가 최고의 서구민인가’를 함께 공감하고 즐기는 무대를 선보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제32회 서구민상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수상자는 ▲사회·봉사 부문 최무진 (㈜나눔테크 대표) ▲교육·문예·체육 부문 정찬용 (사)대한검정회 광주지역본부장 ▲지역경제 부문 김성숙 화정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다.

아울러 서구여성합창단의 특별공

연도 마련돼 서구민의 따뜻한 마음과 선한 영향력 확산의 메시지를 더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에는 500년 전 회재 박광옥 선생이 실천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과 양동시장 상인들의 5·18주먹밥 정신이 살아 있다”며 “이러한 공동체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신뢰가 넘치고 약자와의 배려·동행이 일상이 되는 착한도시 서구를 서구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구는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주민 참여형 정책과 공동체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일상 속 나눔과 배려 문화를 확산시켜 ‘착한도시 서구’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기영 기자

광주 남구, 가정의 달 ‘효행 실천’으로 마음 잇는다

8일 어버이날 큰 잔치 개최, 세대 공감

100세 이상 안부살핌·경로당 방문 활동

광주 남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효행 실천을 주제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

남구는 4일 “5월 한달을 효행 실천 기간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행사와 어르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의미와 공동체 가치를 되새길 계획이다”고 밝혔다.

먼저 남구는 오는 8일 어버이날에 어르신과 주민이 함께하는 ‘어버이날 큰 잔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각종 공연과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축하 및 초대 공연 등으로 구성되며, 세대간 소통 강화 및 효의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

의 장으로 마련된다.

또 평소 효행을 실천한 주민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진행된다.

아울러 남구는 오는 15일까지 지역 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 살핌 서비스를 실시한다. 100세 이상 어르신의 댁을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살피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등 촘촘한 돌봄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관내 100세 이상 어르신은 52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남구는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경로당 263곳에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행복한 삶을 위한 특별운영비를 지급한다.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 효친의 사

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남구 관계자는 “어버이날 큰 잔치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이해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존중받고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청 공직자들은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고, 효행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매일 8일을 ‘옴뎀 효 데이’로 지정해 효행 실천에 나서고 있다.

광주 남구가 가정의 달을 맞아 효행 문화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다양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주민 참여와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확대해 공감대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세대 간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공동체 결속력을 높일 계획이다. 남구는 어르신 복지 분야에서도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고령층의 건강과 정서 안정을 함께 살피는 통합 돌봄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방문 서비스 확대 역시 이러한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여가 및 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있다. 주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도 활성화해 자연스럽게 효행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남구는 앞으로도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대 간 이해를 높이는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문수 기자



2025년 어버이날 큰잔치 사진

/광주 남구청 제공



양동동내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정비사업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
※ 시공업체 : (주)중천산업개발

3월 9일(월) 공가세대부터 공사를 실시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사 진행하는 곳은
관계자 외 출입금지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 : 2026. 3. 9(월) ~ 2026년 완료시까지
양동동내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왕검